

수능 3개월 앞으로... 영어, 중간난이도 문항에 대비를

2020 수능 전략

재수생 6만명 감소한 51만여명 상위권 수험생 경쟁 치열해질 듯 대학별 영어 반영방식에 유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대입의 변수와 막바지 수험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올해 재학생 수능 전년보다 6만여명 감소한 51만241명으로 전반적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불수능에 따른 재수생 증가로 상위권 수험생들의 대입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주요 상위 11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12.7% (1202명) 증가한 것도 변수다. 절대평가로 전환된 수능 영어 영역이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대학별 영어 반영방식도 유불리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인 6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 종로학원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가르는 요소로 떠올랐다.

세종대의 경우 영어 영역 3등급을 2등급으로 올리면 인문계를 기준으로 국어 표준점수 5점, 자연계열 기준으로 수학 표준점수 3.8점 상승과 같은 효과를 내고, 경희대의 경우 같은 등급이 상승하면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가 각각 4.8점, 3.4점 오른 것과 같다.

따라서 이들 중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영어 등급을 올려 수능 경쟁력을 높이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6월 모의평가가 분석 결과, 수학 영역에서 전년도 수능과 다르게 킬러문항 난이도가 소폭 낮춰진 반면, 중간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는 상승한 점을 고

려하면, 킬러 문항 뿐만 아니라 중간 난이도 문항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수능에 자신이 없지만, 수도권 대학 입학에 희망한다면 논술전형에 도전해 볼 수 있다. 특히 연세대는 올해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다만 연세대 논수고사는 수능 이전으로 변경돼 경쟁률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논술전형을 치르는 곳은 연세대를 비롯해, 한양대, 서울시립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의대만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등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원 가능한 6개 대학을 정한 뒤 수능과 논술, 적성고사 등 대학별고사 대비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보다도 어렵게 출제된 점을 고려, 실제 수

능도 변별력있게 출제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춘 수능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수학에서는 6월 모의평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와 과탐2 과목의 변별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자연계 수험생의 경우 수학기형을 유지할지 수학 나형으로 갈아탈지도 정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정시모집을 위한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로학원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은 "내신 2.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서울권에 진학하기 위해 대체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올인하면서 정시 준비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다"면서 "이 경우 수시모집에서 떨어지면 정시에서는 수시에서 충분히 갈 수 있었던 대학들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수능도 끝까지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48.7대1 공군사관학교 경쟁률 '역대최고' 선문대, 미래인재에 '로봇기술' 전파 나서

육군 330명 선발에 1만4663명 몰려

2020년 신입생도를 선발하는 육·해·공·간호사관학교는 6일 1차시험결과와 함께 지원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선발 경쟁률은 공군사관학교가 48.7대 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육군사관학교 44.4대 1, 간호사관학교 44.3대 1, 해군사관학교 2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령인원 감소 등으로 경쟁률 감소를 우려했던 것과 달리 공사와 육사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었다.

육군에 따르면 총 330명(남자 생도 290명, 여자 생도 40명)을 선발하는 육사 80기 선발에 전국의 수험생 1만4663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보다 지원자는

3382명이 늘어났다.

여생도의 경쟁률도 111.2대 1로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3년 연속 육사 지원자는 매년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공사는 총 215명(남자 생도 193명, 여자 생도 22명)을 선발하는 제72기 생도 모집에 전국에서 1만480명이 지원해 역대 최대인 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사 지원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1949년 개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2명을 선발하는 여성 사관생도 모집도 2645명이 지원해 120.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해사의 경우 2017년 이후 지속 상승하던 지원 경쟁률이 소폭 감소했다. 이는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문형철 기자 cap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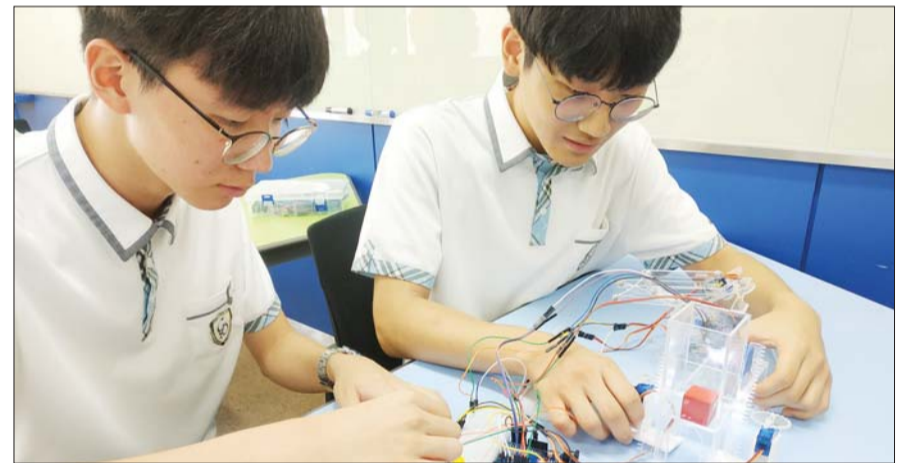
가온고등학교생 40명 대상 교육 로봇 팔, 분류기 등 시제품 제작

선문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생들에게 '로봇' 관련 기술을 전파하고 있어 화제다.

선문대는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가온고등학교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 관련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선문대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완성품을 개발했다. 1학년 20명은 '로봇 설계',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2학년 20명은 'S/W 공학', '발명과 문제해결'에 관한 교육을 받고 스마트 공장에서 필요한 로봇 팔과 분류기를 실제 설계해보고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2학년 20명은 '건물 청소용 드론 시스템', '방제용 드론', '에코 트윈 기술



교육받고 있는 가온고등학교 학생. /선문대

을 이용한 스마트 팜 기술', '자동차용 스마트 환기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4개의 특허와 2개의 저작권 출원을 마쳤다.

선문대 LINC+사업단은 '쌍방향 기업협력·지역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협업 체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진로 교육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고교-대학-기업이 연계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율성, 협력, 공유 능력을 강화하는 '메이커 교육'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대학가 소식

한신대 내달 '오산 역사문화 바로알기' 진행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9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교육·문화도시 오산의 역사문화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신대 평생교육원과 오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신대박물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오산시 관내 활동 문화유산 해설사 및 고

고·역사, 문화유적에 관심 있는 오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산의 역사를 시대별로 나눠 설명하는 '일반 강의'와 오산시 관내에 분포하는 중요 문화재에 대해 살펴보고 탐구하는 '심화 강의'로 구성돼 있다. /손현경 기자

광운대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 개최

광운대학교는 지난달 25일 교내 80주년기념관에서 '2019년도 1학기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IPP 장기현장실습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으로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4개월 동안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산학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이다. /한용수 기자



광운대가 개최한 2019년 1학기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 단체 사진. /광운대학교

'하위평가' 대학, 자발적 인원감축 유도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하위 점수를 받은 대학의 입학 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을 철회하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대학의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 지역과 대학이 협업하는 플랫폼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조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대학이 미래사회와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할 때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방식은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희망하는 대학만 참여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 정해진다.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 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지정된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우선 개선한다. 나아가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며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